

# 李濟馬의 形象觀 이해와 顔面部 형태의 해석

김형순\*, 최광진\*\*

## Understanding of Lee, Je-ma's View of Form and Interpretation of Form of Face

*Kim Hyung-soon, Choi Kwang-ji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Lee, Je-ma proposed ways like Chehyungkisang to judge each constitution, so, on the basis of this, we can judge constitution in various ways. Such a theory is based on behavior determinism's way of thinking of Lee, Je-ma. We can know this that form is not recognized as an object reflecting image, but a subjective concept from Tukyonyodun, Yimokbiku(ears, eyes, nose and mouth), Hameokjebok of Sungmyong Theory. Lee, Je-ma thought each part of human body has not only physical function but also complex temperative function.

Putting this consideration and Jangbu Theory describing human body directly, together, it can be said that these all have an established theory on Chehyungkisang of constitution judgement. Thus,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given.

From Sadan Theory and Hwakchung Theory, strength of Jangbu of Sasangin is Pe>Bi>Shin>Kan in Taeyangin and Bi>Pe>Kan>Shin in Soyangin and Kan>Shin>Bi>Pe> in Taeumin and Shin>Kan>Pe>Bi in Soumin. The concept of Shinkihyuljung is related with creation of form and spirit of each Jangkuk and Aenoheerak(sorrow, anger, joy, pleasure). From this viewpoint, Sasangin can be classified into; Taeyangin into Shinkijunghyul type, Taeumin into Hyuljungkishin type, Soumin into Junghyulshinki type.

---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4學年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2學年

Introduced a fixed way to explain of each constitution according to this strength relationship. I hope more lively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Medicine will be continued based on this attempt.

Key words: View of Form, Chehyungkisang, Shinkihyuljung, Face

## 초 록

李濟馬는 각 체질의 판단을 위해 體形氣像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체질판단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한 이론의 바탕에는 李濟馬의 행위결정론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 이는 「性命論」의 '頭肩腰腎', '耳目鼻口', '額臆臍腹' 등의 단어들을 볼 때, 기존처럼 形을 象을 반영하는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 주체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李濟馬는 인체의 각 부위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복잡한 性情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고찰과 인체의 외형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있는 「臟腑論」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체질판단의 體形氣像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여 보았다.

「四端論」과 「擴充論」을 볼 때, 四象人의 臟腑大小는 太陽人의 경우 肺 > 脾 > 腎 > 肝의 순으로, 少陽人은 脾 > 肺 > 肝 > 腎의 순으로, 太陰人의 경우 肝 > 腎 > 脾 > 肺, 少陰人은 腎 > 肝 > 肺 > 脾의 순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臟腑論」에서 사람의 形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보이는 '神氣血精'이라는 개념은 形의 생성과 관련이 있음과 아울러 각 臟局 및 哀怒喜樂의 기운과 통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四象人을 분류해 보면, 太陽人을 神氣精血型, 少陽人을 氣神血精型, 太陰人을 血精氣神型, 少陰人을 精血神氣型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량관계에 따라 각 체질의 외형에 대하여 일정한 설명방법을 도입해 보았으며,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사상의학의 형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심어 : 形象觀 體形氣像 神氣血精 顔面部

## I. 序 論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여 기존에 밝히지 못하고 있던 四象體質의 原理를 밝혀 기존에

동일하게 보아오던 체질적 의미를 인품장리로서 太陽人·太陰人·少陽人·少陰人으로 구분하였다.<sup>1)</sup>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먼저 인간의 일반적 원리(性情)를 설명하고 이 원리에 입각하여 인체를 구성

1)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東醫壽世保元·四端論>

하는 臟腑論을 구성한 후에 각 체질별로 生理·病理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性情에 의하여 臟腑의 大小가 결정되고 臟腑의 大小에 따라 體質의 모든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四象人 辨證論등에 근거하여 性情(性質才幹), 外形(體形氣像, 容貌詞氣), 病證(完實無病, 大病, 重病, 體質病證)등을 이용함으로써 四象人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질판단 방법 중 원칙적으로는 性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정교함으로 凡人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를 종합하여 체질을 판단한다.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천품적인 체질의 유형을 인정하지 않고 인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陰陽五行論을 중심으로 相生相剋의 순환관계로 생리·병리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으며 다만 병리적 특징을 바탕으로 체질적 특징을 관찰하려고 했다.

이에 반해 四象醫學에서는 천품적인 체질의 유형을 네 가지로 설정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에서도 체질적 특성이 있고 병리적 현상에서도 체질적 특성이 있으며 순환론적 개념이 아니라 事心身物的 특징에 바탕을 둔 四物類의 요약 정신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인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서 기인한 것인데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우주자연 현상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적 동양사상의 하나인 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자연을 대우주, 인간을 소우주라는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인간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天稟을 일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주체로서의 인간보다는 자연현상과 환경에 순

응하고 조화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自然中心的 인식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李濟馬는 인간을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율적인 조절능력이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인간 중심적 인식론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의 차이가 결국 李濟馬가 사상인의 臟腑性理를 얻을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形은 이 세상 존재의 바탕이고 象은 그 바탕을 결정하는 대전제이다. 우리 인간은 이 象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形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象을 찾는다.<sup>2)</sup>

李濟馬 역시 四象人이라는 象을 찾기 위하여 形을 이용하였다. 우리에게 있어 선결문제는 과연 李濟馬가 이 形과 象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으며, 李濟馬의 形象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체질판단을 시도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필자는 《東醫壽世保元》의 原理篇(「性命論」·「四端論」)을 통하여 李濟馬가 가지고 있던 인간관 및 형상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체의 형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臟腑論」을 통하여 李濟馬의 形象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상인의 형상판별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행림출판사, 서울, 1994, p.134

## Ⅱ. 본 론

### 1. 形과 象에 대한 이해

形이란 인간이 五感を 통하여 실제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象이라는 개념은 形과는 다른 개념이다. 만일 形을 인간의 감각에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象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無形으로 형에 내재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象은 사실상 無形인가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세속적인 사회생활과 거기에서 오는 사육 때문에 어두워진 근시안적인 사람의耳目에만 無形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sup>3)</sup>

그렇다면 왜 形과 象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形 자체는 인간이 五感으로 느낄 수 있고 이를 재생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식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形 자체로는 의미하는 바가 적어 실존은 하지만 실체는 아니다. 그것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象은 그 자체가 곧 '의미하는 바'이므로 실체이지만 인간이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形이 아닌 象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대로 象은 인체의 오감을 통하여 실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象을 취득하는 것은 形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만상을 취합하여 종합하는 것이 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象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象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韓東錫은 象은

形 以前の 징조인데 이러한 징조를 바로 보지 못하고 또한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sup>4)</sup> 그 징조를 바라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한의학을 포함한 동양학에서는 形과 象의 인식관계를 중간에 數라는 문자부호를 통하여 인식하였다. 그래서 象의 취득에 있어서도 數象, 卦象, 物象을 구분하여 취득했다.<sup>5)</sup> 왜냐하면 形은 象이 萬化하여 나타나는 수만 가지 표현적 현상인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象으로 취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자체적으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였으며, 수의 체계자체가 象을 이미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과 수와 상의 연결선상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음양과 오행이었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오랫동안 인체를 포함한 자연의 이해의 도구로 사용하여 왔다.

李濟馬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李濟馬가 밝힌 것은 形으로서의 四體質이 아닌 象으로서의 四體質이다.<sup>6)</sup> 즉 우리가 체질이라는 말을 할 때는 실존하는 인간의 체질을 말하지만, 그때 인식하는 방편은 象으로서 인식한다. 이에 대한 한 예를 「四象人辨證論」에 찾을 수 있는데, “太陽人 體形氣像 腦顛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顛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라 한 조문은 肺와 胃腕部位(상초)인 背上胸上以上, 脾와 胃部位(중상초)인 膈膈之間, 肝과 小腸部位(중하초)인 腰膈之間, 그리고 腎과 大腸部位(하초)인 脊膈下以下에 각각의 강세와 약세의 形이 나타나는 것으로

3) 前掲書 : 韓東錫, 134

4) 上掲書 : 韓東錫, 135.

5) 上掲書 : 韓東錫 136-148.

6) ……人殊四象 而各有消長盈虛之理 化成應變萬殊之氣. <東醫壽世保元·序文>

로, 각 체질의 장부대소를 반영하는 象임을 제시한 것이다.<sup>7)</sup>

현재 임상에서도 각 四象人의 外形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학에서 陰陽五行에 근거하여 外形을 설명하는 일정한 방법이 있는 반면 사상의학에서는 외형에 대한 서술의 四象醫學的 기전의 설명이 부족하다. 形에서 象을 취할 때는 일정한 방법이 있어야 그 응용범위도 넓어지고, 我田引水格의 억측이 사라지며 그 근거도 확실해진다. 그러한 점에서 四象醫學에서도 外形에 대한 설명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2. 「性命論」을 통하여 고찰해 본 人間觀·形象觀

### 1) 「性命論」을 통하여 본 인간관

李濟馬의 形象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李濟馬의 人間觀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이해해야만 인간의 形중에 어떤 부분을 중시하였는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李濟馬의 저서 중 《東醫壽世保元》이 의학서라면 《格致叢》는 철학서라 할 수 있다. 《格致叢》의 내용은 「儒略」·「反誠箴」·「獨行篇」 등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학에서 추구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창적 방법과 시각으로 재해석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sup>8)</sup> 《格致叢》에서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를 '四端'인 '聽視言貌/學問思辨/伸收放屈/意慮膽志'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여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는데<sup>9)</sup>, 이는 지극히 의지 표현적인 사고로 기존의 인간관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점은 「反誠箴」과 「獨行篇」에서 中庸의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과 「四端論」의 鄙薄貪懶라는 心慾의 과정 등으로 보아 이제마의 행위결정론적<sup>10)</sup>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性命論」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형태에 '心'을 사용한 단어를 연결시켜 形에 의지적 표현을 도입한 것을 볼 수 있다.<sup>11)</sup> 이것은 지극히 행위결정론적 사고방식으로 물론 頤臆臍腹 등의 고착적 형상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지만 이러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말은 그러한 의지가 결국 이러한 존재와 불가분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李濟馬가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설명하는데 《東醫壽世保元》이 의학서인 관계로 인체중 일부분을 나타내는 명사를 차입하여 연결만 시켰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마음을 보았는지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전체적 맥락으로 이를 살펴보았을 때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생각한다.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臟腑論」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性情의 측면과 물질적 측면을 넘나들면서 인체에서 하나의 생리기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耳目鼻口는 「性命論」에서 好善之

7) 4-1 肺部位 在頤下背上 胃腕部位 在頤下胸上故 背上胸上以上 謂之上 脾部位 在臂 胃部位 在膈故 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故 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故 脊臍下以下 謂之下焦 (東醫壽世保元·臟腑論)

8) 송일병외 :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1997, p.40

9) 上揭書 : 송일병외, p.42

10) 최종덕 : 四象醫學으로 본 철학적 자연관, 四象醫學會誌, 1998: 10(2): p.35

11) 1-19 頤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1-21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慾心 (東醫壽世保元·性命論)

心하는<sup>12)</sup> 일련의 주체적 작용을 하면서도, 臟腑論에서는 水穀之氣라는 물질적 개념으로 臟腑의 盛衰에 대하여 생리적 설명을 하는 데 있어 耳目鼻口라는 外形이 聽視臭味라는 역할을 하고<sup>13)</sup> 이는 다시 수곡지기에 의해 영양 받는 순환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비록 본질적 체질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한 계범위에서 의지적 변화의 가능성을 깊게 암시한 부분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仁義禮智의 四性和 鄙薄食懶의 四慾은 누구에게 있으나, 이를 다루는 것에 따라 聖人 이 될 수도 있고 凡人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sup>14)</sup>

이상을 보면 이제마는 의지 중심적이며 행위결정론적 인간관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체의 외형에서조차 마음의 의미를 관찰하고 이를 연결시키며 '心'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킨 것과 인체의 생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연결시킨 것을 보면 이러한 이제마의 인간관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주체적 인간관이 이제마의 형상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性命論」을 통하여 본 형상관

《東醫壽世保元》에서 體質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설명한 부분은 「性命論」·「四端論」·「臟腑論」 등이다. 특히 「性命論」과 「四端論」은 李濟馬의 철학적 사상을 여과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분으로, 李濟馬의 形象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찰해 보고 넘어가야 한다.

「性命論」에는 기존에 유학이나 철학들이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 많이 나오며 그 각각의 단어들은 사상에 기준 하여 일정한 구도로 설정되어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李濟馬는 《格致彙》에서 이미 事心身物이라는 四象의 本體論을 정립한 것처럼 「性命論」에서도 크게 人事와 天機로 나누고 이에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즉 四象類型的 속성을 이용하여 모든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 사상구조도 그의 사상유형적 요약 정신에 입각하여 인체와 우주의 현상을 서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sup>15)</sup>

이러한 李濟馬의 사상은 '形心論的 形象醫學'<sup>16)</sup>이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한다. 반면 《東醫寶鑑》에서는 '氣衰形表'정신의 형상변증방법으로 身形篇을 설명하고<sup>17)</sup> 병증설명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의학의 모든 생리나 병리현상을 형상변증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8)</sup> 이 표현들에서도 李濟馬의 觀을 엿볼 수 있다. 形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氣는 지극

12) 1-26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東醫壽世保元·性命論〉

13) 4-8 耳 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 目 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膏海之清氣 …… 鼻 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油海之清氣 …… 口 以廣博地方之味力 提出液海之清氣 ……〈東醫壽世保元·臟腑論〉

14) 前掲書 : 최중덕, p.32-33

15) 前掲書 : 송일병외, p.67

16) 上掲書 : 송일병외, p.47

17) “癡樞曰鼻頭色青爲痛 色黑爲勞色 赤爲風色 黃者便難也 色鮮明者有留飲也○鼻色青腹中痛苦冷者死(正傳)○鼻頭微白者亡血也 赤者血熱也 酒客多有之(三因)”와 “面爲陽中之陽鼻居面之中 一身之血運到面鼻皆爲至清至精之血 多酒之人酒氣熏蒸 面鼻得酒血爲極熱 熱血得寒汚濁凝澁而不行 故色爲紫黑治宜化滯血生新血 服清血四物湯(方見上) 氣弱者加酒黃芪(正傳)”

18) 劉準相 :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陰陽觀, 四象醫學會誌, 1997, 제 9권 제 1호, p.105

히 자연적인 설명방법이고 心은 지극히 의지적인 설명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李濟馬의 四象觀은 그 본연의 구조를 논하기 이전에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부터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頭肩腰臀'·'耳目鼻口'·'頤臆臍腹' 등의 실체를 가리키는 단어들은 그 의미를 표상하는 관계에 있어 실제적 존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설명하려는 의미를 표상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차용적 명사인지 명확치 않다. 이는 《黃帝內經》을 비판한 내용<sup>19)</sup>이나 병증론에서 사용된 명확한 어투를 본다면 무의미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아닐 듯 하기 때문이다.

“耳目鼻 人皆可以爲堯舜 頤臆臍腹 人皆自不爲堯舜 肺脾肝腎 人皆可以爲堯舜 頭肩腰臀 人皆自不爲堯舜”에 예문에 비추어 이를 분류해 보면 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은 위치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內藏과 外藏)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히 기능적인 면을 담당하는 것들이다. 頭肩腰臀과 頤臆臍腹은 모두 외형적인 면을 나타내지만 인체의 앞면이나 인체의 뒷면이나로 나눌 수 있다. 「性命論」을 보면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은 인간이 心을 다스려 貢心貢氣 할 수 있는 출구로 생각하고 있으며, 頭肩腰臀과 頤臆臍腹은 貢心貢氣 해야하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이로 보면 본연적 마음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표현적 상태에 대한 李濟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즉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은 본연적 마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그 '心'이 好善, 惡惡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위가 결정되는 頭肩腰臀과 頤臆臍腹은 邪心과 怠行이 無雙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결국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긍정적인 '心'(好善과 惡惡)과 부정적인 '心'(邪心과 怠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부단히 문제를 일으키고 발전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 영위의 본질이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李濟馬는 중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李濟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 중심적 사고가 강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意志·性情을 중요시한 것이다. 李濟馬는 인체의 형상 자체도 의미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무 상관도 없을 듯 보이는 頤에 驕心을, 臆에 矜心을 배속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sup>21)</sup>

다시 말해 인체의 외형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순 기능의 이해에서 좀더 복잡한 이해를 하게 된 것이다.<sup>22)</sup> 이러한 이해에는 기존에 내부적 장기의 설명에 치중했던 생리적 설명에서 외형에 대

19) 5-8 論曰 靈樞素問 假托黃帝 異怪幻惑 無足稱道 方術好事者之言 容或如是 不必深責也 然 此書 亦是古人之經驗而 五臟六腑 經絡鍼法 病證修養之辨 多有所啓發則 實是醫家 格致之宗主而 苗脈之所自出也 不可全數其虛誕之罪而 廢其啓發之功也 蓋此書 亦古之聰慧博物之言 方士淵源修養之述也 其理 有可考而 其說 不可盡信 (東醫壽世保元·醫源論)

20) 1-23 人之耳目鼻口 好善 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 無雙也 人之頤臆臍腹 邪心 無雙也 人之頭肩腰臀 怠心 無雙也 (東醫壽世保元·性命論)

21) 1-19 頤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東醫壽世保元·性命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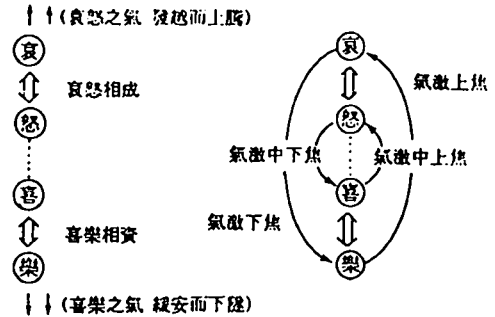
22) 기존에는 頤臆臍腹이나 頭肩腰臀에 대하여 기능적 인식이 없었고, 단지 자연적 形의 형태로만 인식하였다. 耳目鼻口역시 기능의 의미를 이해하였지 性情的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李濟馬는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어 이러한 인체의 형태적 부분에 까지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한 좀더 자세한 생리적 설명이 있었던 것도 포함된다. 「臟腑論」에서 외형의 형성에 대한 설명이 생리와 함께 더불어 나타나며 이러한 설명은 사상인의 근간인 性情과도 일치되는 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臟腑論」을 고찰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될 것이다.

### 3. 각 체질 별 장부의 力量관계

李濟馬는 「四端論」에서 사람이 품고 있는 臟理는 넷으로 각각 다르다고 말하고 太陽人은 肺大肝小, 少陽人은 脾大腎小, 太陰人은 肝大肺小, 少陰人은 腎大脾小라 하였으며<sup>23)</sup>, 哀怒喜樂의 기운 및 그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다.<sup>24)</sup>

이로 보아, 哀怒喜樂之氣는 자신과 유사한 기운끼리는 相成相資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기운을 傷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즉, 直升하는 哀氣는 直而伸하는 肺를 盛하게 하는 반면, 溫而畜하는 腎을 傷하게 하며, 橫升하는 怒氣는 乘而包하는 脾를 盛하게 하는 반면, 寬而緩하는 肝은 傷하게 하며, 放降하는 喜氣는 寬而緩하는 肝을 盛하게 하는 반면, 乘而包하는



〈四氣의 相成相資 및 臟局 逆傷의 원리도〉<sup>25)</sup>

脾는 傷하게 하며, 陷降하는 樂氣는 溫而畜하는 腎을 盛하게 하는 반면, 直而伸하는 肺는 傷하게 한다.

태양인의 경우에 있어, 直而伸하는 肺는 哀性의 直升하는 기운에 의해 盛해지고, 寬而緩하는 肝은 이와 반대기운인 측급한 怒情의 橫升하는 기운에 의해 각이게 되므로 肺大肝小의 형태를 이룬다. 또한, 그 脾와 腎을 비교할 때, “哀怒는 相成한다.”·“태양인의 脾는 능히 交遇에 勇統한다.”<sup>26)</sup> 고 말한 것과 “哀性이 深해질 경우엔, 이 또한 警戒하라.”<sup>27)</sup>라고 말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溫而畜하는 기운을 가진

23)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2-10.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東醫壽世保元·四端論〉

24) 2-11 肺氣 直而伸 脾氣 乘而包 肝氣 寬而緩 腎氣 溫而畜

2-13.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2-22.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 〈東醫壽世保元·四端論〉

25) 前掲書 : 송일병의, p.81

26) 3-3.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東醫壽世保元·擴充論〉

27) 2-18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成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成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成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成 〈東醫壽世保元·四端論〉



腎도 衰性의 直升하는 기운에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그 역량에 있어서 脾보다 腎이 열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태양인의 역량관계는 肺> 脾> 腎> 肝라 할 수 있다.

少陽人の 경우, 栗而包하는 脾는 怒性의 橫升하는 기운에 의해 盛해지고, 溫而畜하는 腎은 이와 반대 기운인 측급한 衰情의 直升하는 기운에 의해 각이므로 脾大腎小의 형태를 이룬다. 또한, 그 肺와 肝을 비교할 때, “衰怒는 相成한다.”·“少陽人の 肺는 능히 事務에 敏達한다.”<sup>28)</sup>고 말한 것과 “怒性이 심해질 경우엔, 이를 경계하라.”라고 말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寬而緩하는 기운을 가진 肝도 怒性의 橫升하는 기운에 영향을 받아, 그 역량에 있어서 肺보다 肝이 열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少陽人の 역량관계는 脾> 肺> 肝> 腎라 할 수 있다.

太陰人の 경우에 있어, 寬而緩하는 肝는 喜性의 放降하는 기운에 의해 盛해지고, 直而伸하는 肺는 이와 반대기운인 측급한 樂情의 陷降하는 기운에 의해 각이므로 肝大肺小의 형태를 이룬다. 또한, 그 腎과 脾를 비교할 때, “喜樂은 相資한다.”·“太陰人の 腎는 능히 居處에 항상 안정될 수 있다.”<sup>29)</sup> 라고 말한 것과 “喜性이 深해질 경우엔, 이를 경계하라.”라고 말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栗而包하는 기운을 가진 脾도 喜性의 放降하는 기운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역량에 있어서 腎보다 脾가 열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太陰人の 역량관계는 肝> 腎> 脾> 肺라 할 수 있다.

少陰人の 경우에 있어, 溫而畜하는 腎는 樂性의 陷降하는 기운에 의해 盛해지고, 栗而包하는 脾는 이와 반대기운인 측급한 喜情의 放降하는 기운에 의해 각이므로 腎大脾小의 형태를 이룬다. 또한, 그

肝과 肺를 비교할 때, “喜樂은 相資한다.”·“少陰人の 肝은 능히 黨與에 대하여 雅立할 수 있다.”<sup>30)</sup>라고 말한 것과 “樂性이 深해질 경우엔, 이를 경계하라.”라고 말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直而伸하는 기운을 가진 肺도 樂性의 陷降하는 기운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역량에 있어서 肝보다 肺가 열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少陰人の 역량관계는 腎> 肝> 肺> 脾라 할 수 있다.

#### 4. 神氣血精에 근거한 四象人型의 재분류

이제마의 四象에 대한 이론은 臟腑論에 와서 절정을 이룬다. 즉, 事心身物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즉, 四物類적 속성을 이용하여 모든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는 이제마의 기본적 철학체계가 「臟腑論」에 와서 구체화되고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臟腑論에서는 水穀의 氣가 인체에 들어와 소화·흡수되면서 발생하는 氣와 物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인체의 형성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곡의 四氣가 陰陽의 편차에 따라 상하에 네 단계로 분류되어 前四海를 형성하게 되고 前四海가 다시 四黨을 형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前四海는 津海·膏海·油海·液海인데, 水穀의 溫熱涼寒의 氣가 胃脘, 胃, 小腸, 大腸에서 각각 津膏油液으로 化하여 혀밀, 젓가슴, 배꼽, 前陰의 毛髮際로 들어가 津海·膏海·油海·液海를 이루게 된다. 이 前四海의 清氣는 귀·눈·코·입으로 나와서 神·氣·血·精이 되고 頭腦·脊椎骨·腰脊·膀胱으로 들어가 髓海·膜海·血海·精海의 後四海가 된

28) 3-3.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東醫壽世保元·擴充論)

29) 3-3.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 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東醫壽世保元·擴充論)

30) 3-3.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 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東醫壽世保元·擴充論)

다. 이 後四海의 淸한 것은 肺脾肝腎으로 돌아가고 濁渾는 皮毛·筋·肉·骨을 이룬다.<sup>31)</sup>

이러한 「臟腑論」의 설명을 통해 前四海와 後四海가 생명의 물질적 기초가 됨과 동시에 陰陽의 편차에 따라 氣·汁·濁渾 등으로 명명되고 淸淸한 것은 上升하고 重濁한 것은 下降하여 인체를 형성하고 자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32)</sup>

이 중 사람의 形이 형성되고 길러지는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귀가 廣博天時하는 聽力으로 津海의 淸氣를 끌어내어 上焦에 충만하게 되어 神이 되게 하고, 눈은 廣博世會하는 視力으로 膏海의 淸氣를 끌어내어 中上焦에 충만하게 하여 氣가 되게 하고, 코는 廣博人倫하는 嗅力으로 油海의 淸氣를 끌어내어 中下焦에 충만하여 血이 되게 하고, 입은 廣博地方하는 味力으로 液海의 淸氣를 끌어내

어 下焦에 충만하게 하여 精이 되게 한다.<sup>33)</sup> 이렇듯 哀怒喜樂의 性 즉, 聽·視·嗅·味의 힘<sup>34)</sup>에 의해 각각 上·中上·中下·下焦에서 神·氣·血·精이 된 후, 다시 거듭 쌓여 賦海·膜海·血海·精海된다. 哀怒喜樂의 性에 의해 賦·膜·血·精海에 쌓인 神·氣·血·精은 다시 이의 기운을 받아 形의 단계에까지 이르는데, 賦海의 濁渾는 머리가 直伸하는 힘으로 이를 단련하여 皮毛를 생성하고, 膜海의 濁渾는 손이 能收하는 힘으로 이를 단련하여 筋을 생성하고, 血海의 濁渾는 허리가 寬放하는 힘으로 이를 단련하여 肉을 생성하고, 精海의 濁渾는 발이 屈強하는 힘으로 骨을 단련하여 骨을 생성한다<sup>35)</sup>.

또한 賦海는 肺의 근본이며 膜海는 脾의 근본이며 血海는 肝의 근본이며 精海는 神의 근본이라 했는데<sup>36)</sup> 神은 肺의 直而伸한 기운, 氣는 脾의 栗而包

- 31) 4-4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淸氣 出于耳而爲神入于頭腦而爲賦海 賦海者 神之所舍也 賦海之賦汁淸者 內歸于肺 濁渾 外歸于皮毛故 胃脘與 舌耳 頭腦 皮毛 皆肺之黨也  
4-5 水穀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膈間兩乳 爲膏海 膏海者 膏之所舍也 膏海之淸氣 出于目而爲氣 入于背脊而爲膜海 膜海者 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淸者 內歸于脾 濁渾 外歸于筋故 胃與 兩乳 目 背脊 筋 皆脾之黨也  
4-6 水穀涼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 爲油海 油海者 油之所舍也 油海之淸氣 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 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淸者 內歸于肝 濁渾 外歸于肉故 小腸與 臍 鼻 腰脊 肉 皆肝之黨也  
4-7 水穀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 爲液海 液海者 液之所舍也 液海之淸氣 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 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淸者 內歸于腎 濁渾 外歸于骨故 大腸與 前陰 口 膀胱 骨 皆腎之黨也 (東醫壽世保元·臟腑論)
- 32) 上揭書 : 송일병외, p.111
- 33) 4-8. 耳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淸氣 充滿於上焦爲神而注之頭腦爲賦 積累爲賦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膏海之淸氣 充滿於中上焦爲氣而注之背脊 爲膜 積累爲膜海 鼻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油海之淸氣 充滿於中下焦爲血而注之腰脊 爲凝血 積累爲血海 口以廣博地方之味力 提出液海之淸氣 充滿於下焦爲精而注之膀胱 爲凝精 積累爲精海 (東醫壽世保元·臟腑論)
- 34) 3-1. ……哀性 非他 聽也, …… 怒性 非他 視也, …… 喜性 非他 嗅也, …… 樂性 非他 味也 (東醫壽世保元·擴充論)
- 35) 4-11. 賦海之濁渾 則頭以直伸之力 鍛鍊之而成皮毛 膜海之濁渾 則手以能收之力 鍛鍊之而成筋 血海之濁渾 則腰以寬放之力 鍛鍊之而成肉 精海之濁渾 則足以屈強之力 鍛鍊之而成骨
- 36) 4-15. 頭腦之賦海 肺之根本也 背脊之膜海 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 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 腎之根本也. (東醫壽世保元·臟腑論) (東醫壽世保元·臟腑論)

〈皮毛·筋·肉·骨 생성 흐름표〉

津海	→廣博天時之聽力→	神	→ 髓 →	髓海 (髓海之濁洋)→ 頭以直伸之力→	皮毛
膏海	→廣博世會之視力→	氣	→ 膜 →	膜海 (膜海之濁洋)→ 手以能收之力→	筋
油海	→廣博人倫之嗅力→	血	→凝血→	血海 (血海之濁洋)→ 腰以寬放之力→	肉
液海	→廣博地方之味力→	精	→凝精→	精海 (精海之濁洋)→ 足以屈強之力→	骨

한 기운, 血은 肝의 寬而緩하는 기운, 精은 神의 溫而畜하는 기운의 근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언급한 것처럼 神氣血精은 哀怒喜樂의 性에 의해 길러지는 바 각각 哀氣直升·怒氣橫升·喜氣放降·樂氣陷降이라는 哀怒喜樂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것 또한, 神氣血精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神氣血精이 形의 생성과 관련이 있고 각 臟局 및 哀怒喜樂의 기운과 통한다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形에 초점을 두어 四象人을 재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太陽人은 肺>脾>腎 肝하므로 神>氣>精 血하고, 少陽人은 脾>肺>肝 腎함으로 氣>神>血>精하고, 太陰人은 肝>腎>脾 肺함으로 精>氣>神하며, 少陰人은 腎>肝>肺 脾하므로 精>血>神>氣이니, 태양인을 神氣精血型, 少陽인을 氣神血精型, 太陰인을 血精氣神型, 少陰인을 精血神氣型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四象人의 顔面部 형태에 대한 재해석

사상인의 體形氣像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東醫壽世保元》이 지어진 이후로 많은 사상의학서적에 체질판별에 대한 설명이 많다.37)38)39)40)41)

또한 이러한 주관적 형상범의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계측화하려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42)43)44)45)46)47)48)49)50)

이러한 기계적 측정에 의한 체형측정방법은 체질

37) 李泰浩 :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울, 행림출판, 1990  
 38) 李道耕 : 四象要覽, 원불교출판사, 익산, 1995  
 39) 朴寅商 :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서울, 1992  
 40)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제 42기 卒業準備委員會 編著 : 韓國의 體質理論, 大星文化社, 서울, 1997  
 41) 金洲 : 性理臨床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7  
 42) 허만희·송정모·김달래·고병희 :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4(1) : 107-148, 1992  
 43) 고병희외 7명 :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의학회지: 8(1) : 101-186, 1996  
 44) 김창수 : 太陰人과 少陰人의 두면부의 체질인류학 특징, 사상의학회지: 9(2) : 299-302, 1997  
 45) 홍석철외 7명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 101-142, 1998  
 46) 이의주외 3명 : 한국인 신체분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 143-160, 1998  
 47) 홍석철·이수경·송일병 :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 161-170, 1998  
 48) 홍석철외 5명 :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형태학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 171-180, 1998  
 49) 홍석철·고병희·송일병 : 사상인 이목비구의 형태학적 특징연구, 사상의학회지: 10(2) : 221-247, 1998  
 50) 홍석철외 5명 : 사상체질별 상안부 Morie형태의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2) : 271-282, 1998

판별에 유의성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체구와 頭肩腰臀의 크기측정에 의한 방법은 예외가 많고, 顔面部의 세부크기 측정법은 측정방법과 공식화에 문제가 있다.<sup>51)</sup>

또한 사상의학서적에는 사상인의 형태에 대하여는 설명하였지만, 그 형태를 사상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앞에서 말한 사상인의 神氣血精의 역량관계에 근거하여 사상인의 顔面部 형태에 대하여 재해석해 봄으로써 체형기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각 사상인의 形은 김주의 《성리임상학》에 나와 있는 〈사상인 상형비결〉<sup>52)</sup>과 유주열의 《동의사상의학강좌》<sup>53)</sup>를 바탕으로 하고 그 범위는 顔面部

〈顔面部 形 비교〉

區分點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血精氣神型	精血神氣型	氣神血精型
顔形	下顎이 안정감이 없다.	體軀에 比하여 조금 긴 편, 或은 등근 경우도 있다.	馬狀으로 鷄卵形이며 下顎이 安定感이 있다. 少陰人 보다 是 體軀에 비해 덜 긴 편.
下顎形	가름하게 빠졌다.(얼굴이 작다는 것은 아님) 얼굴이 퍼지면서 주걱턱인 경우도 있다.	얼굴이 길면서 주걱턱인 경우도 있다.	안정감이 있다. 주걱턱이 많은 편이나 투박하지않음.
顴形	이마가 突出된 곳이 없이 平平하고 兩眉間은 동전 한개를 놓아둔것 같다.	大體的으로 中間 部位가 약간 陷沒되어 있다.	大體的으로 兩眉間이 突出되어 있거나 中間 部位가 돌출되어 있다.
眼形	重而平한 牛眼形이다. 부리부리하게 보이기도 한다.(虎狀)	鷄眼形으로 닭눈 비슷하면서 대체로 둥글고 눈초리는 약간 있는 편	輕한 鳥眼形으로 合理的이고 둥글면서 또렷또렷하다.. 或은 눈이 작으면서 눈초리가 있는 境遇도 있다.
鼻形	둥둥하고 얼굴 전체의 면적에서(下顎의 모양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 매부리코, 혹은 납작하면서 넓은 경우도 있다.	코 끝에 앵두를 달아 놓은 것 같다.(방울코: 코의 상부가 좁고 코의 하부는 넓어지며 끝에 앵두가 달린 듯함) · 예리하나 코끝이 튀어나와 끝에 앵두가 달려 있는 느낌을 준다. · 넓으면서 코끝에 방울이 달린 듯하다. · 납작코인데 코끝이 살짝 올라간 듯(安東多) 코의 상부가 죽고 코의 하부는 넓어지고 끝에 앵두가 달린 듯하다.	코끝이 대체로 銳利하고 얼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작은 편 或 크면서 銳利한 境遇도 있다. 혹 들창코
脣形	上下脣의 模樣이 거의 비슷한 편.	1. 上脣은 薄하고, 下脣은 厚하면서 나옴 2. 전체적으로 둥글면서 입술이 모아진 느낌 3. 입이 크면서 입술은 얇고 단아한 느낌 4. 턱이 쪽 빠지면서서 下齒가 上齒를 덮음	1. 上下脣이 매우 얇음 2. 上下脣이 서로 벌어지면서 두텁고 특히 上脣이 위로 치켜져 올라감

51) 김종열·김경요·송정모 : 사상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의학회지: 10(1) : 181-214, 1998  
 52) 金洲 : 성리임상학, 대성문화사, 서울, 40-44, 1997  
 53) 柳周烈 : 동의사상의학강좌, 대성문화사, 서울, 135-170, 1999

로 하여 神氣精血型·氣神血精型·血精氣神型·精血神氣型이라 나눈 규정에 맞추어 고찰해 본다.

### 1) 太陰人-血精氣神型

太陰人의 본질이 血精氣神<sup>54)</sup>하므로 기운의 중심이 中下부위에 있으며 血의 기운이 강해 아래로 放降하는 느낌을 주고 전반적으로 重厚한 인상을 준다. 또한 하부에 비해 상부의 氣神의 세력이 약한 형상이며 특히 神의 直升하는 기세가 가장 취약하다.

#### (1) 顔形 및 下顎形

太陰人의 顔形은 대체로 옆으로 퍼지는 양상을 가진다.

下顎이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없다는 말은 血精氣神型이기 때문에 精의 陷降하는 기운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 血의 放降하는 작용이 강해 흐르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얼굴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서 넓어지고 하악골이 발달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氣神의 세력이 약하므로 이마로 올라 갈수록 얼굴의 폭이 좁아질 것이고, 太陰人의 주격턱의 경우 血의 퍼지는 기운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기보다는 퍼지면서 쪽 흐르는 투박한 형태가 된다.

#### (2) 顴形

氣神의 기세가 상대적으로 약해 이마가 돌출 되지 않고 평평한 형이다.

眉間이 동전 한 개를 놓아 둔 것 같다고 한 것은 血의 기운이 강해 좌우로 퍼지면서도 상부의 기세가

약해 생기는 형태이며 쌍구이마처럼 이마가 불거져 나온 형태라 하더라도 이마가 가운데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 (3) 眼形

소의 눈 같다라고 말한 것은 크면서도 눈매가 매섭지 않고 순박하고 우직한 눈을 의미<sup>55)</sup>하고 血의 기운이 많아 풍성한 눈이다. 눈이 작거나 찢어졌다고 할 지라도 太陰人의 喜性と 樂情을 담고 있기에 결코 매섭게 보이지는 않는다.

부리부리한 虎形의 눈이라 함은<sup>56)</sup> 血精의 기세가 지나치게 강하여 흰자위가 두껍게 보이며 약간 붉은기가 도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눈매가 찢어져서 무서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런 눈의 太陰人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무섭기보다는 호탕하다라는 느낌을 준다.

#### (4) 鼻形

중하부에 위치한 코는 부위적으로도 그렇고 鼻가 肝局에 속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太陰人의 경우 面부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체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라 하겠다. 큰 코라도 太陰人의 경우, 血精氣神하므로 상하로 발달해 있다기 보다는 좌우로 발달해 있고 혹 납작하면서도 넓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경우 다른 체질의 양상처럼 山根부위가 죽으면서 지나치게 내려와 있진 않고 좌우로 퍼짐이 지나칠 것이다.

#### (5) 脣形

血精氣神型인 太陰人으로서 血精에서 精의 영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 少陰人처럼 下脣이 厚하면서

54) 이하 '神氣血精'의 순서는 각 체질에 따른 역순의 순서를 의미한다.

55) 前掲書 : 유주열, p.143.

56) 上掲書 : 유주열, p.144.

나오지도 않고, 氣神의 영향은 약해 少陽人처럼 上脣이 약간 위로 치켜져 올라간 편도 아니다. 上下脣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하더라도 血의 放降하는 기운과 血精 및 氣神의 상대적 기세의 차이로 인해 가지런하면서도 입의 양끝이 약간 내려오는 경우가 다른 체형에 비해서 많다.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비해 두꺼운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 少陰人처럼 陷降한 기운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放降의 기운이 강하므로 少陰人에 비해 작지 않고 퍼지는 느낌을 주는 두툼한 모양일 것이다.

## 2) 少陰人- 精血神氣型

少陰人의 본질이 精血神氣하므로 기운이 중심이 하부에 있어 얼굴의 하부가 발달해 있으며 기운이 아래로 흐르는 상일 텐데, 精의 기세가 血의 견제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아래로 흐르지 않으며 短小靜雅하다. 반면, 神氣의 기세가 精血에 비해 약하므로 상부가 약한 모양일 것이고 특히 氣의 橫升하는 기세가 취약할 것이다.

### (1) 顏形 및 下顎形

少陰人은 精血神氣하므로 血의 放降하는 기세도 精의 陷降하는 기세보다 약하고 氣의 橫升하는 기세는 취약하여 좌우로 퍼지는 기운은 약한 상이라 하겠다. 그러다 보니 顏形은 조금 긴 편이고 下顎形 역시 길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상부의 神은 열세에 있어 길다는 것이 지나치게 상하로 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少陰人의 경우 주걱턱이 보인다해도 앞으로 지나치게 튀어 나왔다든지 좌우의 각이 발달한 투박한 모습은 드물 것이다.

또한 얼굴 모양이 '당나귀 모양이다'<sup>57)</sup>라고 한 경

우도 있는데, 이는 少陰人의 얼굴 분위기에서 풍기는 簡易小巧함을 나타낸 것이다.

### (2) 顴形

少陰人이 이마가 대체적으로 중간 부위가 약간 함몰되었다고 한 것은 상부의 기세가 약한 것을 말한다. 덩치가 크고 살이 많이 찐 少陰人이라 할지라도 이마의 함몰이 생기지 않을 지는 모르지만 이마가 좁아 보이고 팍 찬 느낌을 주지 못하므로 神氣의 기세가 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3) 眼形

少陰人은 脾局 즉, 氣의 기세가 가장 취약한 경우이므로 눈의 경우, 역시 少陽人처럼 또렷또렷하진 못하며 약간 탁하면서 대체로 둥글고 눈초리가 약간 있는 鵝眼形이 많다<sup>58)</sup>. 太陰人과 비슷한 눈매라도 血의 기세가 강한 太陰人과는 거리가 있고 少陰人은 좌우의 기세가 약하기에 눈이 길게 찢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 (4) 鼻形

少陰人의 精血의 기세가 강한 양상은 코에서도 나타나는데, 陷降하는 精의 강한 기세와 放降의 血의 기세의 조합으로 대체로 코끝이나 코의 하부가 발달하여 조금 넓어지면서 코끝에 앵두가 달린 듯 하거나 물방울이 달린 듯 한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코가 예리하다 하더라도 코끝이 튀어나와 끝에 앵두가 달려 있는 느낌을 주고 납작코라 하더라도 太陰人과는 달리 精의 陷降하는 기세가 강해 山根부터 죽어서 내려오다가 코끝만 살짝 드리며 옆으로 퍼지지도 않고 코끝에 물방울이 달린 듯 하며, 코가 크다 하더라도 살이 아주 적으며 코의 하부만 유난히

57) 前掲書: 유주열, p.104-105 "당나귀 얼굴모양이라는 말이 아니고 당나귀의 성질을 띠었다는 말이다."

58) 上掲書: 유주열, p.160.

발달하여 있는 경우인 것이다.

### (5) 脣形

少陰人は上脣이 薄하고 下脣이 厚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부의 神氣의 기세에 비해 하부의 精血의 기세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脣局의 脣으로서 少陰人の 경우 기세가 입에서 살아 있음은 분명하며, 대체로 전체적으로 두툼하면서 모아지는 느낌이다. 만약, 입이 클 경우, 太陰人보다는 상대적으로 얇으면서 기운의 차이로 단아하게 보인다.<sup>59)</sup>

### 3) 少陽人-氣神血精型

少陽人は 본질이 氣神血精하므로 기운의 중심이 中上部에 있고 氣의 기운이 강해 위로 橫升하는 흐름을 보이며, 위로 흐르되 아래로 흐르는 느낌은 약하다. 아울러 精의 陷降하는 기세가 가장 취약할 것이다.

#### (1) 顔形 및 下顎形

얼굴 전체의 모양은 계란형으로 氣神의 기세가 강하므로 특히 얼굴에서 眉間이나 이마 등 상부가 발달하였으며 턱도 少陰人과는 달리 위로 발달하는 감이다. 少陽人の 下顎은 전체 얼굴형에 어울리는 안정감을 주며<sup>60)</sup>, 주걱턱이 많다하더라도 상부로 橫升하는 기세가 강한 少陽人에 있어서 太陰人の 주걱턱과 같은 아래로 퍼지는 듯 발달해서 생기는 투박한 형태는 아니다.

또한 馬狀이라 하면 少陽人이 氣神의 기세가 강하고 眉間이 명랑함을 말하는 것인데, 흡사 말의 성질을 띤 얼굴이라는 의미다.

#### (2) 顴形

少陽人の 이마는 少陽人에게선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위이기도 하다. 그 만큼 기세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大體的으로 兩眉間이 突出되어 있거나 中間 部位가 돌출되어 있다. 少陽人の 이마는 상부가 가운데로 몰려 있어서 이마가 넓은 경우에는 이마의 상부 가운데가 두두러지게 발달해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마가 약간 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眉間이 발달한 것이므로 모두 少陽人の 氣神의 기세가 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眉間이 약간 넓은 경우라 하더라도 太陰人처럼 좌우로 넓어져 眉間이 좁은 경우는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 (3) 眼形

눈은 脾局으로서 廣博世會之視力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少陽人の 눈이 대체로 또렷또렷하고 흰자가 탁하더라도 그렇게 보이며 다른 체질에 비해 눈이 더 발달하고 또렷하고 맑다.<sup>61)</sup> 혹, 매의 눈처럼 작고 예리하다고 한 경우 역시 氣神의 기세가 血精의 기세보다 강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눈이 작으면서도 目外子가 약간 찢어져서 조그만 하면서도 예리한 경우를 말한다.

#### (4) 鼻形

少陽人は 氣神의 기세가 강해 아래로 길게 발달한 尖 않으며 예리하고 얼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다. 이는 太陰人이나 少陰人처럼 中下 이마가 발달한 체형과 비교되는 부분으로, 太陰人처럼 厚하면서 퍼지거나 少陰人처럼 코끝에 방울지지도 않음을 볼 수 있다. 설혹, 少陽人の 코가 아주 크면

59) 上掲書 : 유주열, p.163-164.

60) 上掲書 : 유주열, p.153.

61) 上掲書 : 유주열, p.154.

서 짧고 넓적하게 된 경우라도 쪽 뺨이 내리거나 코 끝이 뻣히지는 않는다.

### (5) 脣形

血精의 기세가 약한 少陽人으로서 口脣이 대체로 다른 체질에 비해 작은 편이다. 少陽人은 氣神의 세력이 강하므로 脣에서도 입술을 다물지 않을 경우 少陽人은 윗입술의 인중부위가 위로 당겨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며 上下脣이 약간 얇으면서 크지 않고 윗입술이 약간 밀려올라 가는 느낌이 일반적이다.<sup>62)</sup>

### 4) 태양인-神氣精血型

태양인은 본질이 神氣精血함으로 기운의 중심이 상부에 있고 神의 기운이 강해 상부로 直升하는 기세가 강한 반면, 血의 하부로 放降하는 기세는 가장 취약하다.

태양인의 形에 대하여는 기존 사상의학계에서 발표된 바 없어 임상 경험이 없는 필자가 무어라 정의할 바는 없지만, 이제마의 초상을 볼 때 무엇보다 귀가 上下로 길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눈썹과 눈초리가 평상시임에도 불구하고 위로 치켜 올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면이 태양인의 神氣의 기세가 강함을 나타내는 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四象人의 顔面部 형태에 대하여 神氣血精의 가설을 세워 나름대로 설명해 보았다. 이러한 설명의 시도는 위에서 말한 바대로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이라도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발전의 토대와 일정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 이에 대한 바탕은 물론 《東醫壽世保元》을 바탕으

로 하는 사상의학의 이론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東醫壽世保元》에 기초한 가설로 형상에 대한 많은 설명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Ⅲ. 결 론

1. 李濟馬의 철학세계에는 행위결정론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四象醫學에도 영향을 미쳤다.
2. 「性命論」의 '頭肩腰臀', '耳目鼻口', '額臍臍腹' 등의 단어들을 볼 때, 기존처럼 形을 象을 반영하는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 주체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3. 李濟馬는 인체의 각 부위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육체적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고 복잡한 性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8. 「四端論」과 擴充論을 통해 볼 때 四象人의 臟腑大小는 太陽人의 경우 肺·脾·腎·肝의 순으로, 少陽人은 脾·肺·肝·腎의 순으로, 太陰人의 경우 肝·腎·脾·肺, 少陰人은 腎·肝·肺·脾의 순으로 생각할 수 있다.
9. 사람의 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臟腑論을 통해 볼 때 神氣血精은 四象人의 외형에 대하여 설명하기 가장 합당한 개념이다.
10. 이로 보아 사상인의 외형은 神氣血精의 力量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태양인은 神氣精血型, 少陽人은 氣神血精型, 太陰人은 血精氣神型, 少陰人은 精血神氣型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의하여 각 체질의 세부형태를 설명해 보았다.

62) 이상 각 체질간의 유사 체형은 유주열의 《동의사상의학강좌》에 제시된 바를 인용하였다.



## 참 고 문 헌

1.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행림출판사, 서울, 1994, p.134
2. 송일병외 : 四象醫學, 김문당, 서울, 1997, p.40
3. 최종덕 : 四象醫學으로 본 철학적 자연관, 四象醫學會誌, 1998; 10(2): p.35
4. 劉準相 :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陰陽觀, 四象醫學會誌, 1997, 제 9권 제 1호, p.105
5. 李泰浩 :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울, 행림출판, 1990
6. 李道耕 : 四象要覽, 원불교출판사, 익산, 1995
7. 朴寅商 : 東醫四象要訣, 소나무, 서울, 1992
8.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제 42기 卒業準備委員會 編著 : 韓國의 體質理論, 大星文化社, 서울, 1997
9. 金洲 : 性理臨床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7
10. 柳周烈 : 동의사상의학강좌, 대성문화사, 서울, 135-170, 1999
11. 홍순용·이을호 :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사, 서울, 1994.
12. 홍석철외 7명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 101-142, 1998
13. 홍석철·이수경·송일병 :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 161-170, 1998
14. 홍석철·고병희·송일병 : 사상인 이목비구의 형태학적 특징연구, 사상의학회지; 10(2) : 221-247, 1998
15. 김종열·김경요·송정모 : 사상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의학회지; 10(1) : 181-214, 1998